

“사립유치원비리 국민정서에 반해”

유은혜 부총리, 긴급회의 열고 의지 밝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15일 오전 교육부 내 긴급 회의를 열고 “부총리께서 유치원 비리와 부패, 불공정 문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낮은 일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에 누리과정 형세 2조원과 학부모가 수업료를 내는 만큼, 원장의 유치원비 전용과 비리 등 상식에 맞지 않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장·차관은 잇달아 시도교육청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박춘란

차관은 오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뒤인 18일에는 유 부총리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직접 주재해 사립유치원 전반을 점검한다. 이날 말 발표할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교육감은 선출직이지만 부교육감은 교육부가 고위공무원을 파견하는 직책이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 원칙과 기준은 물론 사립유치원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답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 주도의 재정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기로 결정

했다.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정보회계시스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두 달 앞당겨 발표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말 발표할 종합대책에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재정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확대할 것인지, 별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누리과정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로 전환하거나, 보조금으로 명목을 변경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설 국장은 “이번 대책에 누리과정 전환까지 미치지 않았다. 다만 정보공시 개선이나 평가 등 공공성 확보

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사항을 살펴보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간 감사 주체와 인력, 방식에 대한 표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2014~2017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 주체와 수위, 초치가 천차만별이었다. 교육부는 인력과 감사 가이드라인 등이 달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폭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저항은 예상된다.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재무회계규칙 시행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휴업 등 단체행동을 취하며 반발했다.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장은성 기자

수능 D-30, 실수 줄이는 전략으로

아는 건 내실 다지고 오답은 보완에 집중

한 달 뒤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중압감과 불안한 마음에 벼락치기를 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능을 한 달 남겨놓은 지금은 새로운 지식을 넣기보다는 정리에 힘쓰고, 시험 자체에 대비하는 습관을 익히기 좋은 때라고 조언한다.

◇**욕심 내기보다 실수를 줄이자**

단순히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암기하거나 기술 문제를 반복해 푸는 학습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아는 것은 머리 밖으로 꺼내는 훈련을, 모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친숙한 언어로 내가 아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백지에 기술 개념과 유형 중심으로 공부 내용을 정리해보거나, 오늘 푼 문제를 스스로 설명하는 방식의 복습 말이다.

수학 과목이라면 공식 하나를 단순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활용되는지 논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르는 것, 즉 오답에 대해서는 평소 보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무리하게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실수가 잦은 유형과 단원 위주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복습하

야 한다. 즉 아는 내용의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복습을 해야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습시간도 과목별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취약한 과목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해, 당일 ‘믿었던 과목’에서 실수하거나 시간 때문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꾸준히 정해진 양의 기출문제를 풀거나, 주요개념을 정리해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시험은 시간과의 싸움**
수능시험 당일에는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당일에 맞춰 신체리듬을 다지고, 여러 변수를 고려해 틈틈이 실천훈련을 해야 한다. 돌발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또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수능 시간표대로 모의고사를 푸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수능은 영역과 과목별로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배점이 높더라도 과감히 마지막에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평소처럼 1번부터 차례로 풀다 막히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불합당 시간을 보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뉴스

호원대, 베트남 진출 일자리창출에 나서다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선발 경영과정 · 비즈니스 영어 교육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고용위 기지역으로 군산이 선정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 청년 경영 관리자 취업과정’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15일 호원대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 청년 경영 관리자 취업과정’은 호원대학교와 사단법인 글로벌CEO연구포럼이 MOU를 맺고 베트남에 진출할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선발, 국내에서 경영과정 전반과 기초수준의 베트남어와 비즈니스 영어를 교육한 후 현지 베트남에서 취업연수를 거쳐 청년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해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현지인에 대한 경영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경영 관리자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인력 공단에서 실시하는 K-Move 스펙을 통해 양성하며, 현지 기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취업을 실현하고 취업한 우수생들은 베트남에 나갔을 한국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교육기간은 29일부터 시작돼 2개월간 호원대학교에서 합숙집체교육으로 진행하며 이후 2019년 1월부터 5개월간 베트남 하노이 국립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취업연수를 진행한다.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2019년 6월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만 34세 이하 4년제 대학 졸업자로 글로벌 취업 의지가 확고하고 해외



호원대학교가 고용위기지역으로 군산이 선정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 청년 경영 관리자 취업과정’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장기 연수 및 근무가 가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발된 청년들은 교육비 일체를 지원 받게 된다. 맞춤형 실용학문과 다양한 취업

중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4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호원대는 이번 베트남 진출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과정을 통해 국

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양성하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셈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이재갑 “일자리 문제 국민적 우려 커… 역량 집중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일자리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우리 고용노동부가 직면해 있는 정책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30년 넘게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특히 고용상황과 관련해 지난 12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일자리 시장은 여전히 어렵고 국민적 우려도 크다”며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임시·일용직과 영

세 자영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도 이러한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속에서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고용노동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고용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 달라”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업장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 지원이 확대되는 고령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축! 전주매일 창간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제 259회 임시회

- 기간 : 2018. 10. 22 ~ 10. 26. (5일간)
- 안건 : 의안심의,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의회 고창군의회
http://council.gochang.go.kr